

뉴스 &gt; 사회

## 낮잠 자고, 폭행하기도...일부 장애 활동 보조인 일탈 문제

신정은 기자

입력 : 2018.07.05 07:55 | 수정 : 2018.07.05 09:22



&lt;앵커&gt;

정기적으로 장애인을 찾아가 집안일과 사회 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있습니다.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고마운 분들인데요, 일부에서 본분을 망각한 활동보조인들의 일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
신정은 기자가 고발합니다.

&lt;기자&gt;

정신지체장애 1급인 정 모 씨를 돕기로 하고 방문한 활동보조인입니다.

그런데 제집인 것처럼 바지를 벗고 침대에 드러눕더니 한가롭게 휴대전화와 신문을 봅니다.

돌봐야 할 장애인은 나 몰라라 거실에 둔 채 낮잠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.

심지어 정 씨가 방에 들어와도 본체만체하기까지 했습니다.

[현지원/정 모 씨 어머니 : 어디 감히 생각을 해요. 나는 (활동보조인 이) 오자마자 아이 밥 챙겨주고, 그리고 수영장을 가는 줄 알았죠.]

정 씨가 재활수영을 가면 물에서도 보호해줘야 하는데 혼자 둔 걸로 확인됐습니다.

[수영장 직원 : 예전에 선생님은 입수를 하셔서 가지고 같이 수영도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. (이 활동보조인은) 수영장 안에 데려다 주시고 끝날 때 다시 오셔서 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것밖에 안 하신대요.]

활동보조인은 정 씨가 쉴 때만 쉬었다고 항변합니다.

[정 씨 활동보조인 : 저도 이제 쉴 데가 없으니까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좀 졸리면 즐기도 하고.]

장애인을 학대하는 일도 있어서 어떤 활동보조인은 복지관 앞에서 발달 장애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다 부모한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.

[발달 장애 아동 가족 : 활보(활동보조인)한테 맞고 있다고. '눈 위에서 그것도 주저앉아서. 머리를 막 때린다. 아이가 이이 그러면서 운다']

의사 전달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주변에 알리기 쉽지 않습니다.

보호자가 알게 돼도 활동보조 기피 대상이 될까 봐 선뜻 신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.

신정은 기자

입력 : 2018.07.05 07:55 | 수정 : 2018.07.05 09:22

저작권자 무단복제-재배포 금지